

# 쏘울, '부스터' 별칭 달고 6년만의 귀환

### 기아차 광주공장 전량생산...출시행사 갖고 판매 돌입 대표적 '수출효자 차종'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드는 쏘울이 '부스터' 별칭을 달고 새롭게 돌아왔다. 대표적 '수출 효자 차종'이라는 점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줄어들고 있는 생산량과 수출 물량을 해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는 23일 쏘울 부스터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쏘울 부스터는 2008년 쏘울 1세대, 2013년 2세대를 거쳐 6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쳐 선보이는 3세대 모델이다.

쏘울은 당시 국내 자동차시장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신개념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차다. 혁신적 디자인으로 2009년 한국 차로는 처음으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기아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인 '레드닷 디자인상',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을 휩쓸며 디자인경쟁을 내세운 기아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2세대 쏘울은 2014년 8월 프란

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포프 모빌'(Pope Moblie, 교황의 차량)로 선정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 3세대 쏘울 부스터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전기차(EV) 모델은 다음 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쏘울 부스터는 동급 최고 수준인 최고출력 204마력과 최대토크 27.0kgf·m,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를 탑재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후측방 충돌 경고(BCW),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이 적용됐고 재생 중인 음악에 따라 실내에 다양한 조명 효과를 연출하는 '사운드 무드램프'가 탑재됐다.

크기도 기존 모델 대비 전장, 전고, 축거가 각각 55mm, 15mm, 30mm 커져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다.

기아차 최초로 블루투스 기기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쓰는 '블루투스 멀티커넥션', 운전자가 전방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드는 쏘울 부스터.

(기아차 제공)

다양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컴비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쏘울 부스터 EV는 기존 모델 대비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린 64kWh 배터리를 장착했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386km로 기아차 전기차 모델 중 가장 길다.

쏘울은 지난 2008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만 168만대가 넘게 팔

린 베스트셀링카로, 지난해도 전체 생산량(15만 6716대)의 98.3%(15만 4134대)가 수출됐다. 광주지역 주력 제조업인 만큼 생산이 늘면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업체(50여곳)를 비롯, 이들과 거래하는 수백개 협력업체의 물량-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구원투수라는 말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소상공인 10명중 6명 "주휴수당 지급 안해"

### 2750명 설문 64.2% 답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지급 여력이 없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2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한

다'는 응답자는 21.7%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14.1%는 주휴수당을 시급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60.9%는 '지급 여력이 안 돼서'라고 밝혔다.

21.6%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고 했으며, 16.2%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1.3%는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각각 답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한마음장학재단에 2000만원 장학금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3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지역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배성범 광주지검장, 박치영(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이 장학금은 광주한마음장학재단을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과 보호관찰 처분 비행청소년, 생계곤란 모범 청소년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에도 광주한마음

장학재단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12월에는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다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과 동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꿈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간편식 소비자 만족도 높아...가구당 월 7만8875원 지출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7~8월 202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이들 중 500가구의 4주간 가계부 조사를 토대로 한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간편식 지출액은 7만8875원이었다.

가구원 1인당 월평균 간편식 지출액은 1인 가구(7만1517원)가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가구(5만8596원), 4인 가구(4만9267원), 3인 가구(4만7947원), 2인 가구(4만4159원)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간편식 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편리성이 3.97점, 다양성 3.85점, 맛 3.75점 등으로 대체로 중간 이상이었고, 1년간 간편식 구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28.1%였다. 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1.2%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7.78 (+10.01)	금리(국고채 3년) 1.80 (0.00)
↑ 코스닥 695.63 (+1.08)	↓ 환율(USD) 1127.30 (-3.20)



## 설 명절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대책 운영

### 광주본부세관 다음달 6일까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이하 특별통관지원기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특별통관지원기간에는 명절 성수품인 수출입 화물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2.2~6일) 동안 수출물품 미선적(선적기한→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토록하는 등 수출입 업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설명절 자금지원을 위하여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하고, 은행마감시간(16시) 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로 세관 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연장 운영(18시~20시)하며,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새마을금고 아동 정기적금 누적 계좌수 10만건 돌파

### '우리아기첫걸음' 출시 43일만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23일 아동 명의로 저축할 수 있는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이 출시 43일만에 누적 계좌수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22일 기준으로 누적계좌수 10만 316건, 누적금액 251억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가입연령이 만 6세 이하로 제한된 상품이지만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 아이를 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월 10일 출시된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아동 및 부모 1인 이상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경우 파격적인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이율에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할 경우 연5.0% 이상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6세 이하 개인이



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한시적 판매를 위해서 출시한 이벤트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	--	---

www.aroma-life.co.kr

# 1588-2219